朝鮮日報

二十一日夕刊

五省聯盟主에 吳佩孚氏推戴

中部中國에 大號令

(漢口十九日發) 信할만한 報道에 依하면 岳州에 잇는 吳佩孚氏는 二十日當地에 來할터인데 五省聯盟에 盟主가 되여 中部中國을 號令하게 되리라더라

吳佩孚漢口到着

(上海二十日發) 岳州에 잇서 戰機의 熟함을 기다리고 잇든 吳佩孚氏는 部隊를 率하고 二十日午前九時 漢口에 到着하엿더라

兩艦隊奉天派에 反抗

(上海二十日發) 上海艦隊는 渤海艦隊와 行動을 가티하야 吳佩孚氏를 推戴하고 奉天派에 反抗하기로 決하엿더라

蕭耀南도 出動通電

孫氏와 協力하야 中原平定

(上海二十日發) 湖北의 蕭耀南氏는 十八日附로 段祺瑞氏及各省軍民長官에게 通電을 發하되 孫傳芳氏와 協力하야 國家의 禍를 除하고 中原을 安定하겟다는 意를 表明하엿더라

孫傳芳南京入城

(上海二十日發) 第二軍司令謝鴻勳及五省聯合軍總司令孫傳芳은 二十日無事히 南京에 入하얏다 그래서 孫總司令은 特히 馬聯甲을 安徽軍總司令으로 任命하엿더라

徐州進出은 疑問

(上海二十日發) 南京의 陳調元은 部下를 率하고 揚子江을 渡하야 浦口로부터 前進하는 中인데 一方楊督軍、龔省長은 徐州까지 進出하야 此處에서 一戰을 交할 意向이나 孫이 果然 徐州까지 進出할 수가 잇는지는 疑問이더라

張、河南攻略決意

이는 奉直戰以來의 夙題

但李景林態度가 如何할가

(奉天二十日發) 戰機漸熟함에 따라 緊張한 奉天首腦部는 審議한 結果 南次의 奉直戰에서 竄圖하든 河南攻略을 하기로 決하고 直隸의 李景林麾下의 兵을 集中하게 되엿스나 다음 反奉天派의 攻擊을 待하야 一擧에 攻取하지 아니하면 西北에 잇는 馮玉祥、南에 잇는 孫傳芳、正面衝突의 岳維峻 等 三方面의 攻擊을 밧게 될 으로써 이제 數日의 戰局의 變化에 依하야 決行하기로 하얏다 一方李景林은 이 難局에 서서 엇더한 態度를 取할가 疑問이나 同氏의 觀測으로는 馮玉祥은 奉天派가 徐州에서 太敗하기까지는 出馬치 아니하겟고 又孫傳芳의 反奉天은 元來 敵本主義에서 關稅會議의 阻止를 어듸까지 努力할 것이라고 觀測하더라

馮氏行動이 第一念慮

(奉天電) 江蘇의 風雲이 急迫하자 奉天軍은 一戰도 交치 안코 退却하엿는데 그것은 豫定의 行動이라고 觀測하더라

奉天軍總動員

軍需品輸送에 紛忙

奉天省城에는 戒嚴令

(奉天二十日發) 楊宇霆部下 一張宗昌部下가 十三萬 一의 奉天兵이라고 稱하는 것이 二萬 純奉天派로서는 ……

時評

中國動亂如何?

× 자못將軍從天降의 槪가 잇는 孫傳芳의 擧兵에 因하야 上海一帶가 몬저 直隸派의 手中에 들어갓고 到處에서 벌떼가티 닐어나는 舊直隸派 將士의 內應에 因하야 奉天派의 驍將인 楊宇霆도 드듸어 蒼皇히 北方으로 撤歸하고 孫傳芳의 先鋒은 벌서 南京에 進據하야 石頭城上 다시 國民軍의 光景을 들어내엿다 한다 그 所謂 人間萬事 塞翁馬! 今夏 張宗昌의 上海進出 當時 吾人의 杳曉하엿든 바는 畢竟 今日에 그 明白한 歸結을 보겟도다 奇하다 그러나 奇할 것도 업다

× 孫傳芳이 五省聯合을 稱하니 浙江省은 自家의 治下이오 福建의 周蔭人과 湖北의 蕭耀南은 今日까지 이미 態度를 表明하야 同時擧事하기를 決하엿고 江西의 方本仁은 아즉 그 動靜이 不明하나 安徽省은 舊馬聯甲의 部下將士가 다시 直派에 呼應하야 擧事할 을 推測할 수 잇다 左右間 容易치 아니한 形勢이다

形勢자못重大

× 이제 安徽의 姜登選이 또한 蒼皇히 北走하야 長江以南 蘇安의 兩省 거의 奉天派의 勢를 머물르지 아니한 것 가트니 得勝의 驕心에 因하야 懸軍萬里 멀리 江南의 地까지 進出한 것은 원낙 奉派의 妄想이오 失策이엇섯다 前者 王揖唐이 段執政의 股肱이오 安福派의 策士로써 스스로 그의 故鄕인 安徽省에 鎭하되 畢竟 全功을 엇지 못하고 因하야 北上하엿스니 姜登選이 奉派의 一末將으로 急遽히 志를 엇고 一躍을 鎭撫할 수 업슴은 當然한 일이요 東三省으로부터 山東直隸를 거쳐 中南半壁에 그 過分한 勢力을 擴張하엿든 奉軍이 이제 急遽한 退却으로서 그 戰線의 縮少와 大兵을 實現한 것은 또한 當然한 일이다

× 그러나 奉軍은 急遽한 退却을 斷行하엿다 그는 금 작이 敗戰이라고는 할 수 업다 戰界的의 敗退는 될지언정 勿論 아즉 軍事的 敗退는 아니다 그는 곳 戰線의 大縮少를 爲한 豫定의 退却일 것이다 그러나 直派 및 國民軍의 將士 外지도 到處에 策應하는 者 잇고 奉張은 畢竟 大動員을 斷行할 밧게 업스니 形勢 자못 重大라고 아니할 수 업다

勝敗를 未可知

× 吳佩孚는 畢竟 出動하얏다 한다 아마 事實이겟지 吳氏의 失脚 以來 자못 依違因循하야 態度가 不鮮明하든 湖北의 蕭耀南도 이미 蹶起하엿다 한 즉 奉張一派가 南方의 蘇安兩省을 抛棄하고 河南을 力爭코저 함 ……

段執政

張、馮에 調停努力

(北京二十日發) 十九日 馮玉祥氏에게 蔡作霖氏에게 莫德惠氏 ……

馮、調停拒絶

(北京二十日發) 馮玉祥 ……

馮軍北京入城

(北京二十日發) ……

奉天派의 重要地點은 徐州

世界事情 (中의 停刊中)

假調印된 保障條約 (三)

安民世

佛軍의 侵入權

恒久의 平和를

駐屯期의 短縮

滿滿한 不平을

完全한 同盟을

三總長 能免說

政府는 極力否認

滯日中의 二巨頭

秘密裡에 策動

吳光新氏召還?

使節急速渡日

東北陸軍大學

自明年度開校

胡漢民氏

莫斯科到着

佛新金貨公債

畢竟은 失敗?

國家貧弱을 救할 길?

이는 自主權回收에 잇다

◇關稅會議 議題綱目概意

津浦京漢兩鐵

急行運轉中止

奉軍六萬

二十日夜南下

山東督張宗昌

戰備이미 整頓

楊宇霆

天津向發

奉天軍總參議

王樹常氏任命

佛軍의 新攻勢

日本無產政黨綱領

十八日委員會에서 決定

◇司法制度改革其他十四條

中人五名放逐

塽中條約調印

民訴法改正案

五一議會에 提案

產米增殖計劃

經費交涉有望

度量衡器販賣

小學教員實地試驗

鮮銀員異動斷行

京仁間電話增設

醫師試驗合格者

人事消息

八面鋒

가뎡부인

의학상으로본 과자와어린이(三)

먹이는과자종류를 가리어말하면이러타

女醫 劉英俊

三

어린아이에게과자가가장필요한시긔는

1、리유긔(離乳期)ㅡ난지여덜달부터두살까지
2、유아긔(幼兒期)ㅡ두살부터네살까지
3、유치원긔(幼稚園期)ㅡ네살부터일곱살까지
4、학령긔(學齡期)ㅡ일곱살부터열네살까지

올시다 그런데 엇더한 과자를 엇더한시긔에 사용하는것이 맛당하냐 그것을말하자면

◇리유긔
일본과자는엿、가루야기、서양과자는식(食)팡、비스켓드、소다구락가、후잉아、비스쿠이、지즈비스켓트、라스크

◇유아긔
잡동산이는비스켓트、봉밀(蜂蜜)、아마가라、우즈마기
일본과자는락간、오고시、서양과자는 갸라멜、 상등비스켓트、메렝크、 소품너흔비스켓트、시유크림、랑크구도시야、본봉、압부두바이、가스테라、키얀데、스폰지드릅흐
잡동산이는 유레가요지、위생(衛生)썰、 소바썰、밤(栗)킷트、시간당(糖)、철포옥(鐵砲玉)、센베이

◇유치원긔
일본과자는지야츠、모모야마、만두(饅頭)、소맥(小麥)만두、당(唐)만두、소바만두、즙분(汁粉)、구즈못지、가루두스센베이、군(君)시구레
서양과자는 제리빙스、수이트가렌스、파루지안색비나츠츠、빠나나 도롭흐스、스폰지도릅흐스、민츠、피스、썀닷츠、방얀츠、썀、빠나나킷크、마시마로、시용브아이스크림
잡동산이는운평(平)、기유히、위생엿、수무이(水無飴)、시오센베이、오호단、아라레、가기못지、오가(近家)보、금옥당(金玉糖)

◇학령긔
일본과자는엿、 요우강、 모모야마、 금옥당(金玉糖)
서양과자는왓볼、 후렌치갸라멜、바나라치、지요크렛트、스잇트지요코렛트、 지요코렛트멜볼、 도라이、제아라산、치야인나마볼、비낫츠타볼、비낫츠능아、푸렌치본봉、마시마로、크로아산、 진지야켁크、 바시안츠
잡동산이는 봉우히 스두(豆)、가린당(糖)、 긴츠바、 남경두(南京豆)、히시두(豆)、청두(靑豆)、푸라이아마가과、켄곳츠、

이상에긔록한 여러가지 과자를 각가정에서 소용되시는대로 과자집에 주문하야 아모조록어린아이건강에 도움이되도록 하시기를바랍니다……(끗)……

리혼하는것이 엇더켓습닛가

저는 아모철도몰으는 십오세째에 여섯살이나 손위되는촌처녀와 결혼을하엿스나 결혼후 내외가무엇인지 아지도못하고 경성에류학하려 왓습니다 집안에서는 일을잘한다고 조와하나 아모정도업시 집안에 잡어두는 것은 일종의죄악으로 생각함니다 리혼을하는것이 엇더할는지요 나이는처가금년 이십륙세、나는이십세 임니다(광화문일부生)

여섯살이나 손위되는이와 결혼한일은 매우동정합니다 매양이러한일은 매우 복잡미묘한 인정관계가 잇는것임으로 뎡허노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설영맛갓지못한 결혼이라도 될수잇스면 그대로평화로운 가뎡을일우도록 노력하여보시요 이것은 당신의맘먹기에 달린것임니다 일을잘한다고 집에서 조와하신다는사실로 빔우어보면 부인되신이의 신톄가건강한것과 성질이 원만한것은 알수가잇는 즉셜영 나이만코 시골생장이 되여서 경성풍속에 눈외은 당신에게 맛지아니한 험졀이 잇다고 할지라도 당신만맘을 돌려서 사랑하는 생각을가지게되면 가뎡의 평화는보증일수잇스며 그와가티 순박한녀청이 자긔남편에게 향하는마음이란것은 과연순진하고 아릿다운것임니다 그럼으로당신이 리청의판단으로 십긔를 몰리고 당신을편상텬하에다 시업는 사람으로 충실히섬겨주는 그심사를생각하야 아모조록 원만히지나시도록 최선노력을 하여보시요 그리나 사람의 조와하고 실혀하는감정이란것은 유시호 인력으로엇지할수업는 경우가잇는 것인즉 당신이아모리 생각을하여도 엇지할수업는 경우이면 그때는 상대자의 친뎡을만히 생각하여서 하로밧비 단연한 처치를 하는것이 피차의행복이겟지요(일긔자)

◇신랑신부◇

박창화(朴昌和)씨의 장남 규선(奎善)군과 오병상(吳秉常)씨의령매 영준(永俊)양의 결혼식을 이십이일오후네시에 정동감리교제일회당에서 김종우(金鍾宇)목사의주례로 거행한다는데 신랑은 시내법학전문학교에 재학중이요 신부는 중앙유치원사범과에 재학중이라고 (사진은박규선군과오영준양)

사람에게 충실한 개

개를기르는법은 극히 간단하니 조석두번식 시간을정하야(대개오전열시와 오후네시)먹을것을주는것밧게는 업습니다 사람과가티 하로반드시세때를 먹여야할필요도업고 특별한 반찬을난드려줄필요도업습니다 다만사람이먹다남은 밥에된장국을부어주면 그것으로써 만족한것이올시다 고기썩다구나 생선가시나물씨기들을 모하서 주어도조코 닭국이나소고기국물을밥에부어주면 그것은 개의생원이라고 할만하게진수성찬이 되는것입니다 두부비지를 썩써로먹이면 개의위와장이 든든하고 분변이불결하지 안승니다 요컨대 개의 음식은갑비싸고 맛잇는것보다감싸고 지커분한것 다시말하면 사람의상미테떠러진 부스러기와 사람이못먹을가시나 뼈를주는것이 오히려조흔 음식이됩니다 백미보다현미 그보다도보리밥이 더조흡니다 야채도고초가튼 매운것을제하고는 엇더한것이던지 다잘먹음니다 그리고개가 병이드럿는지 안드럿는지를알려고하면 먼저코를보아야할것이올시다 만약코속에 저근기운이 업는듯하고 식욕이업서젓거든 그것은개에게 무슨병이던지잇는 증거인줄 아십시오 대개는 위장에고장이 생긴때가 그러하니 푸른풀을 먹고십허하는것이올시다 설사를하거나 배속에벌레가 생긴듯하거든 약을라서 먹여야합니다 개를각구는법은별다른 방식이업고 매일아츰솟로 온몸을문질러주는 것이필요합니다 몸을뭄에 씻처주는것은 건강에조치못하고 한달에한번이나두번식유황(硫黃)을먹이면모든병이업서지고몸이매우大세여집니다 운동을충분히식히는것은극히조흔일이니 강아지는날마다 식후삼십분가량 다리고산보를 하는것이 조흡니다 그리고개의 몸에잇는버룩을 잡어주는것은 대단히조치못하니 개의생을 연구한것으로써 일홈이놉흔진 불란서 엇던수의(獸醫)는오래동안 개의심리를 연구한결과이러케 발표하엿다합니다『개에게서벼룩을 잡어내는것은 개의건강상 극히해로운일이니 반드시개자신으로하여금삽게할것이다 만약한마리도남기지안코벼룩을다삽어주면개는소일거리가업서서우울병(憂鬱病)에걸리고말것이라』고말하엿답니다(끗)
(적간견의계속)

『목양견』

『그레트덴반견』

『폭소니종』

어린이신문

어린이의셰(一)

어느나라에한사신(使臣)이 왓는데 님금님을 보입고서는 두말업시 마당에다가 둥글게원(圓)을하나 그리고 텬연스럽게안젓습니다 이사신은 이웃나라에서왓는데 그나라는 대단히 무서운 나라가되여서 이나라에서는 전부터 두렵게녀이든터이라 대궐안에서는 큰야단이 낫습니다 그러나 그뜻을 풀어내는이가 업슴으로 님금님께서는 그중에 연구잘하는신하에게 이뜻을알어마치라고 말슴하셧습니다 만일 잘알어맛치지못하면 목이라도 버힌다고 하셧습니다

이신하는 님금님의 말슴을듯고 즉시집에도라와서 아모리그뜻을 풀려고 하엿스나 도모지알수가업서서 음식도먹지안코 머리를싸고 알엇습니다 집안사람들은무슨영문인지 모르고 걱정하면서 그까닭을 물엇습니다 그러나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말하여도 소용이업다고 말하지안엇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도 어린아들이 하도섧히졸으는고로 할수업시말하엿습니다

『온 아버지도 그쌔짓것을모르시고걱정을하세요 어서진지나잡수십시요 그러면 내가가르켜드릴터이니……』 하며어린아들이 그아버지에게 자세히 가르켜드렷습니다 (계속)

멍텅구리 자작자급 (85)

배우사면

(一) 룡이냐봉이냐 옥매아씨
(二) 아들을나주어서 심평이폇다고
(三) 아가돌돌아 얼러대면서
(四) 배우를사면하고와서 온갓수선

劇과映畵

沈淸傳短評

CK生

▽土月會에서脚色上演한沈淸傳은確實히失敗라볼수잇다 爲先脚色이 그리잘되엿다고할수는업스니 그것은劇이 劇으로의책임과為調된場面도볼수업고 또幕의排列이라든지場化가도모지調和되지도안엇기때문이다 劇이라고하는것보다도單只事實의羅列이라고하는것이可할것이다

▽沈淸傳全部를 한劇안에表現식힌다는것은相當히考慮할일인줄안다 나는도로혀 沈淸傳과가티 朝鮮사람으로 그內容을거의볼사람이업는小說은 一部分一部分을各各獨立한劇으로만드는것이 그劇의效果를收하는데 非常히有助하지안흘가생각한다

▽李白水君의 沈봉사는 相當한成功이라볼수잇다 沈淸이를떠나보내는場面은 君이아니면演出치못할妙技이다 그러나 最後의 皇后가된自己딸과相逢하는場面은 平凡하다는것보다도 도로혀稚劣하다는便이나흘것이다

▽卜惠淑君이沈淸의役을마튼것은 매우不適當한役으로안다 沈淸은 가장淸楚하고 간엽히고 處女다운곳이잇서야하겟는데 卜惠淑君은 聲音부터가 벌서 沈淸이란이劇의女主人公의印象을全部破壞하여버린다 그의演出엔여러가지험이만타 第一顏容을失望케한것은自己가 배人사공에게몸을팔기로決心하는場面이다 洞里老婆에게서 사람산다는風說을듯고 그당장에사람살사람을데려와서 조금도 臨蹰함도 생각함도업시 당장에팔녀가기를承諾한다는것은 普通우리의常識으로서는 理解할수업는일이다

▽이劇이 歌劇이아니요夢幻劇이아닌以上龍宮을 一幕으로써挿入하는것은 너무나前後幕과의調和를破壞하는것이다 또沈淸이가 물에빠질때 沈봉사의幻影이낫타나는것이라든지 龍宮에서仙女가와서沈淸이를만어가는것이라든지 그新奇한舞臺裝置는 一部觀客의好奇心은쇼을게할지는몰으되 劇의效果는조금도낫타내지는안흐리라생각한다

▽申時雨君의쌕덕어미는相當한演出이라하겟스나 너머그動作과言語 表情에 故意와誇張의氣分이잇다

▽其餘의俳優는足히말할만한것이업고 照明과舞臺裝置는아즉朝鮮의程度로서는 이로써滿足하지안흐면안되겟다 (一〇、二〇)

雙玉淚全編

단성사주최로 지방순회흥행

만인에게 대환영을 바든장화홍련전(薔花紅蓮傳)의 면재 감독 박정현(朴晶鉉)씨의 총 지휘아래완성된 쌍옥루(雙玉淚) 전후편십오권을 금년구월 이십육일에단성사에서 개연하야 공전의대성황을 일우엇고 십월십팔일부터 평양데일관에서 흥행하야날마다 대만원을 일우엇다함은 그때에 이미보도된 바이어니와 단성사에서는다시청진(淸津)회령(會寧)간도(間島)웅긔(雄基)성진(城津)등지도 순회 힐터이라하며 날자는 아즉미정이라고

(寫眞은雙玉淚前編中一場面)

家庭不和로 飮毒自殺未遂

부내와룡동에서

시내와룡동(臥龍洞)륙십일번디 김숙경(金淑敬)(二十)이라는녀자는 이십일오후여덜시경에 양잿물을마시고 자살코자하는것을 그집안식구가 발견하고 즉시자동자에시러남대문밧세부란스』병원에 입원시켜는급수당을 밧게하야 겨우그생명은 구하엿다는바 원인은 일상집안에풍파가 잇던중 이날도집안에서 다톰이 잇섯든바 술을잔득마시고 그와가티한것이라더라

今日學藝休載

小說 靑衣夜叉(청의야차)

金浪雲 譯 盧心汕 書

二

무엇이든지 그집을 다시차저갈반한표를 긔억하여 두지안엇다는것은 분명히 나의실책이엇다 『로논』은너르다 아모리그엽헤잇섯다 하더라도 그광경을눈으로보지 못한나에게는 그집을 차저낸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일이다 나는미련하게도 이것을생각지 못하엿다 돌기둥과란간이잇는집이라고 하더라도『론돈』서편에는 그러한집이 몃천집이나 되는지 알수업다

『아니올시다』하고 나는 대답하엿다 『고발할생각만급하여서 나종에 차저가도 알수잇도록무슨표를 하여둘것을니젓습니다』

『올아 나는 십팔년이나 이근을하는동안에 여러가지 로형과가티 야기를 다들엇지만 로형이 별별이 헛농을치는소리는 처음듯겟소』

『내가보고를 할수잇는것은 그집은큰집이고 훌륭한 가구가잇고 압헤는돌기둥과 란간이잇다는것이올다 한가온데로 마루가잇고 그좌우편으로 방이잇섯승니다』

『그것이 무슨소용이잇는말이오』 하고그는말하엿다 『그집으로마리고 가지못할터이면 나를못들 필요도업지안소 그러나로형의옷을 보닛가 로형은쌔홈하엿거나 엇더케한 모양이구려 로형의옷에 피가 뭇지만안엇스면 미친놈이라고또차보내겟소』

『나는미친것이아니야요』하고 나는 부르지젓다『무서운범죄가 생겻서요 그래서나는 당신의조력을 빌고저하는것이야요』

『그대가 그곳을안다면가보기도 하지 그러나알지못한다며 ―― 그러면 엇더케하란말이야?』

『즉시 경찰서로다려다주십시오』하고나는 단연한 태도로말하엿다 『나는경찰서로가서보고하지안으면 안되겟습니다』

『아니 경찰서로갈필요도업지 어써서 그사건이생겻는지 그것도몰으닛가』

『보고하는것은 나의의무이고 그보고를 탐색하는것은 경찰의의무이지오』

『로형 손을다첫구려』하고그는몰엇다 『엇재서손을다첫서?』

『잘못하다가 단도로다첫승니다』

『누슨단도로?』

『사람을죽이든그단도로요』

『그단도로엇재서다첫서요?』

하고그는 경관의톄면도 니저버리고 야비한말소리로 물엇다

『나는그것을발견하엿습니다』

『어대서?』

『그방에서요 손으로더듬어보다가』

그는의심스러운듯이 무엇이라고 중얼중얼하엿다

나는 나의옷에무든피와 분녕치못한 대답으로 그혐의가내게로도라오는줄을 쌔다랏다

『누가그대의 머리를 그러케상해노앗서?』하고 그는물엇다

나는이에대하야 길을잘못건너다가 마차에치엇다는것과 그까닭으로 인사불성이 되엇다는것과 나종에 정신을차려서본즉 알지못하는 엇던부인이 간호하고잇섯다는것을 이야기하엿다

그는 나의말을 밋지안는듯이 픠우셧다

『당신은 나의말을 밋지안는구려』하고 나는갑작히 빠르게 말하엿다『어서경찰서로 다려다주십시오 여기를노치면안됩니다』

『그러시우』하고 그는말하엿다『로형의말은 특별히 이상한이야기요 로형은무서운사건이 이근처에서 생겻다고하면서 그집을 몰으는것아니오 하도이상한말이닛가 누가듯던지 로형의말을 밋지안을듯하오』

『당신은몰라도 다른이는알수잇겟지오』하고 나는비쇼면서말하엿다『자아 경찰서로다려다주십시요』

그사람은 실흔변서도 나의팔을잡앗다 그러고 우리들은너르는 큰길을 건너서갓다

『로형은잘못것는모양이구려』하고 경관은쌔르게말하엿다『자아 저긔마차가잇는데 타는것이 엇덧소?』

『그래요 불러주십시오』하고 나는말하엿다 나는몸이 피곤하엿다

우리두사람은 이내마차우에 올라안게되엇다 우리는 그가지정하는 머하압헤잇는 경찰서로 마차를달리엇다

그동안에나는 모든사실을 생각나는대로 죄다설명하엿다 그는매우 주의를하며 나의이상한이야기에 귀를기우리고 잇섯다 차다가 내가그이야기를 다하고 난즉 그는말하엿다

『이상하다하면 참이상한사건이로군 나는누가듯던지 정말로는안미들듯하오』

◇天氣豫報 曇一時晴
◇溫度 廿一日 正午 五三、一
◇比較 二十日 最高 三七、四
◇日出前六時四七 晝間 一一時〇一
◇日入後五時四八 夜間 一二時五九